

| 추석 명절의 공연시장은 평상시보다 클까?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

뮤지컬 전문지 '더뮤지컬'에서 오랜 기간 기자, 편집장, 국장으로 지냈으며, KOPIS의 데이터를 토대로 발행하는 '공연전산망'의 편집장을 지냈다. 공연 비평과 공연 시장, 공연 제작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 드라마터그로, 비평가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공연한오후'를 통해 공연계 소소한 담론을 생산하고 확장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연인들은 일반인들이 쉴 때 더 바쁘다. 크리스마스, 연말을 공연장에서 보내는 공연인들이 많다. 명절 때에도 마찬가지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처럼 성수기는 아니지만 명절 때에도 공연은 지속된다. 긴 연휴를 이용해 공연장을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향이나 친지 방문이 많은 명절 연휴 기간에 공연시장은 평소와 비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데이터를 통해 추석 명절 공연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데이터 비교 분석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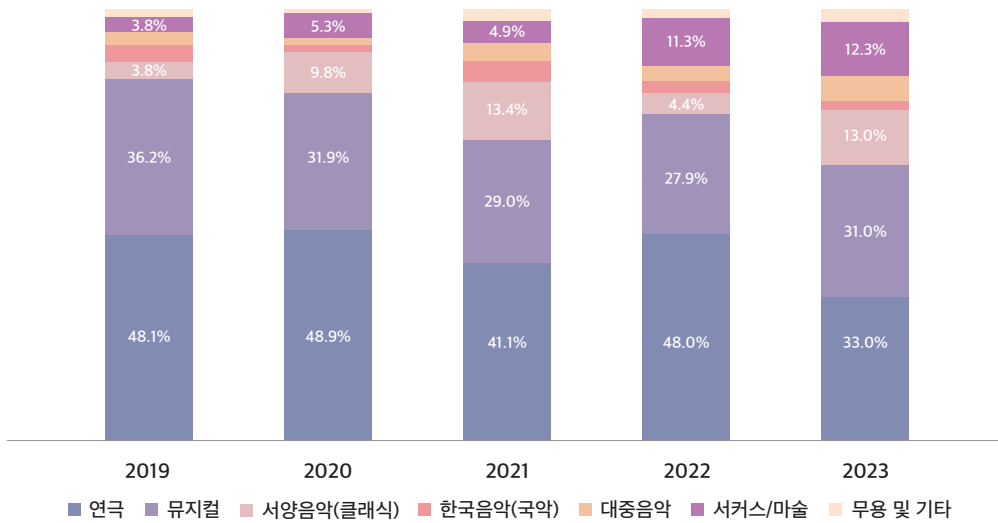
추석 기간 공연시장 규모와 관객수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KOPIS 데이터를 통해 일정을 설정하면 쉽게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추석 명절 공연시장의 활성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는 통상 3~5일 정도로 짧으므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 것인지 그 비교 대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너무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을 매해 추석의 동일 기간으로 한다면, 그 일정에 공연계의 휴일인 '월요일'이 포함되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파악해야 하고, 동일 조건으로 맞춘다고 해도, 그 일정이 짧다 보니 그 시점에 어떤 대형 공연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시장의 규모나 관객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단순 수치 비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명절 공연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2019~2023년 추석 연휴와 동일 기간의 1주일 전·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이는 월요일이나 연휴 2회 공연 등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함이다. 동일 기간 1주일 전·후의 수치 비교를 통한 추석 명절 티켓판매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추석 연휴 공연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자.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추석 연휴 공연의 특징

* 아래 내용은 '23.10.6. 추출 데이터 기반 '19~'23년 추석 연휴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함

2019~2023년 추석 연휴 장르별 공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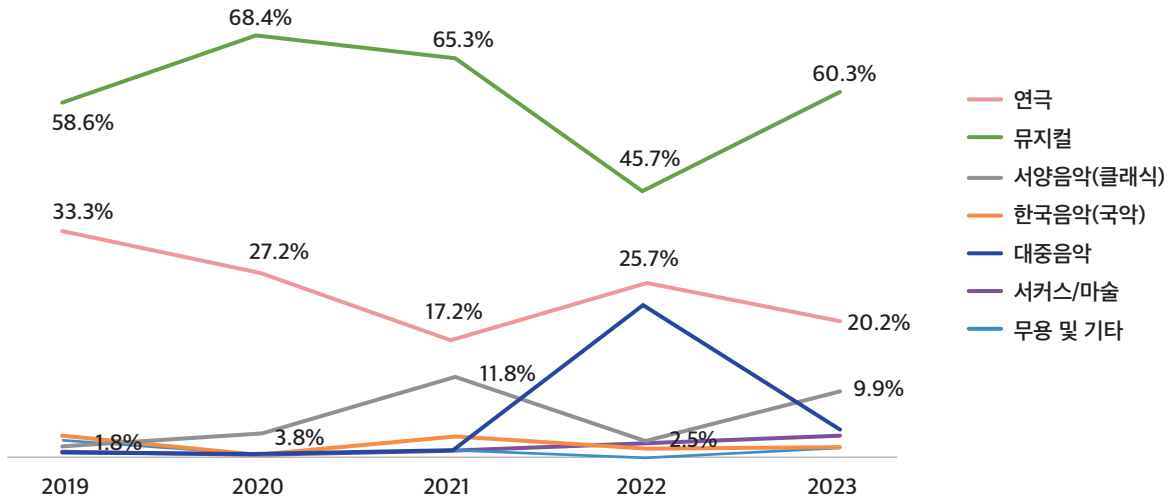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극	48.1%	48.9%	41.1%	48.0%	33.0%
뮤지컬	36.2%	31.9%	29.0%	27.9%	31.0%
서양음악(클래식)	3.8%	9.8%	13.4%	4.4%	13.0%
한국음악(국악)	4.3%	2.3%	4.9%	3.4%	2.0%
대중음악	2.6%	1.5%	4.5%	3.4%	6.0%
서커스/마술	3.8%	5.3%	4.9%	11.3%	12.3%
무용 및 기타	1.3%	0.8%	2.2%	1.5%	2.7%

추석 연휴 동안 무대에 오른 공연은 대부분 연극과 뮤지컬이었으며, 꽤 큰 격차로 클래식과 서커스/마술 공연이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각 장르의 연도별 공연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국악은 2019년 4.3%에서 2023년 2%로 감소한 반면, 클래식은 2019년 3.8%에서 2021년 13.4%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 예외적으로 클래식 비중이 4.4%까지 줄어들었으나, 다음해 13%로 수치가 회복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커스/마술 역시 해마다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3년 12.3%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평소 뮤지컬과 함께 공연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중음악의 경우, 추석 연휴에 비교적 공연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건수로만 본다면, 세 번째로 낮은 순위이다. 단, 해마다 전체 공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는데 2019년 2.6%에서 2023년 6%로 점차 증가하였다.

2019~2023년 추석 연휴별 티켓예매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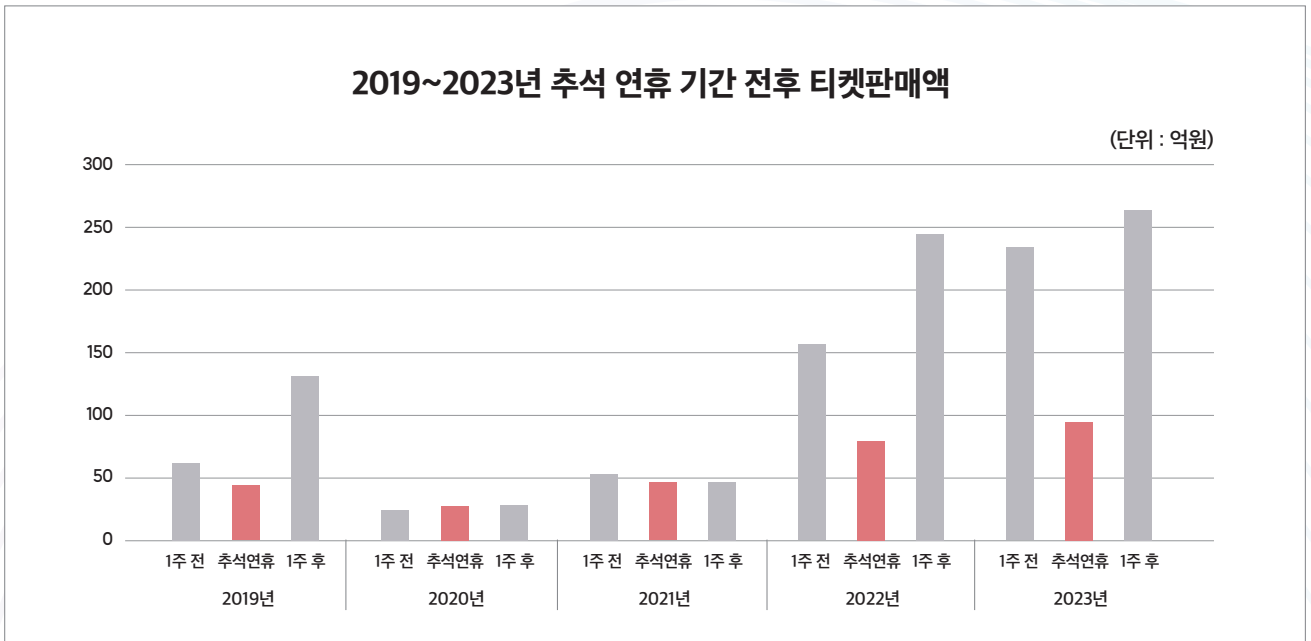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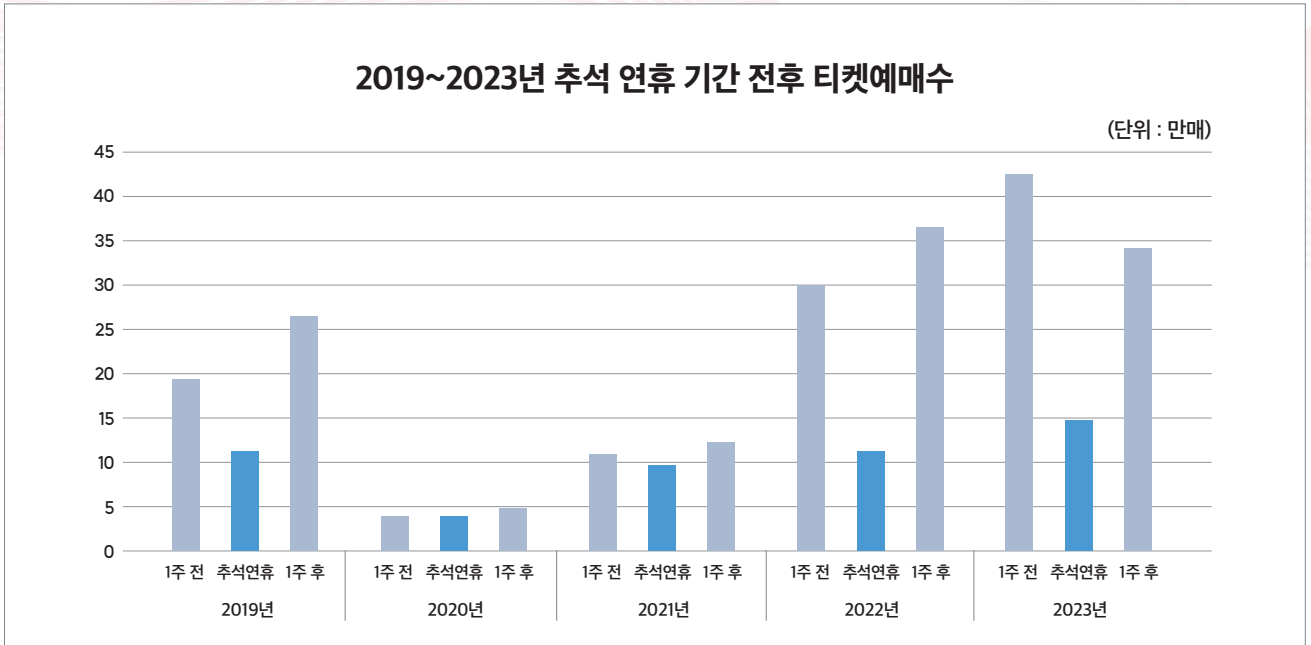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극	33.3%	27.2%	17.2%	25.7%	20.2%
뮤지컬	58.6%	68.4%	65.3%	45.7%	60.3%
서양음악(클래식)	1.8%	3.8%	11.8%	2.5%	9.9%
한국음악(국악)	2.9%	0%	2.7%	1.2%	1.2%
대중음악	0.8%	0.2%	1.0%	22.5%	3.8%
서커스/마술	0.4%	0.4%	1.0%	2.3%	3.2%
무용 및 기타	2.2%	0%	1.0%	0.2%	1.3%

앞서 공급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수요 측면이다. 추석 연휴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연 장르는 ‘뮤지컬’이었다. 전체 티켓예매수에서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는데,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모두 60%대를 기록하였다. 그다음으로 티켓예매수가 높은 장르는 연극이나, 해가 지날수록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관객 수로 보아도 대중음악은 추석 연휴에 공연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예외적으로 2022년 22.5%의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SM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한 <NCT 드림콘서트>(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의 양일 공연 중 하루가 추석 연휴에 걸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 첫해여서인지 추석 연휴에 <송골매 전국 투어>(올림픽공원 KSPO DOME), <장윤정 라이브>(여수 진남실내체육관)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대형 콘서트가 다수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2023년 추석 연휴 대중음악의 티켓예매수 비중은 다시 3.8%대로 떨어졌다. 클래식 공연과 서커스/마술은 공연건수와 마찬가지로 해가 지날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추석 명절 공연시장은 평소와 다를까?

* 아래 내용은 '23.11.20. 추출 데이터 기반 '19~'23년 추석 연휴 및 동일 기간의 1주일 전·후 데이터를 분석함



그렇다면, 실제로 공연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얼마나 활성화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와 동일 기간의 1주일 전·후 티켓예매수 및 티켓판매액을 비교해 보았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추석 연휴 동안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공연시장이 적게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별 장르로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9~2023년 추석 연휴 동일 기간 1주일 전·후 장르별 공연 1회당 티켓예매수

회당 관객수 (단위: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주 전	추석 연휴	1주 후	1주 전	추석 연휴	1주 후	1주 전	추석 연휴	1주 후	1주 전	추석 연휴	1주 후	1주 전	추석 연휴	1주 후
전체	126	95	164	54	59	64	121	104	118	117	246	189	218	112	183
연극	52	55	66	22	27	30	45	37	45	52	69	67	47	48	44
뮤지컬	144	157	151	134	131	119	189	182	181	208	230	232	215	187	186
서양음악(클래식)	390	268	365	39	95	163	226	351	260	341	233	394	297	451	399
한국음악(국악)	181	162	125	4	1	29	110	134	104	50	215	167	125	265	265
대중음악	407	101	837	29	47	56	251	60	113	2,121	1,748	699	1,609	242	1,087

연극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추석 연휴 동안 동일 기간 1주일 전·후 평균보다 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 장르는 2021년부터 공연 1회당 관객수가 추석 연휴 1주일 전·후 평균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긴 추석 연휴에 한국음악 공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서양음악은 2021년과 2023년 공연 1회당 관객수가 추석 연휴 1주일 전·후 평균을 앞섰다. 의외로 뮤지컬 장르는 2019년 한해만 추석 연휴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관객이 찾아왔다. 반면, 대중음악은 타 장르에 비하여 유난히 추석 연휴 동안 티켓예매가 저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전반적으로 추석 연휴 동안 평소보다 공연시장이 적게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중음악 시장에서 도드라졌다. 그러나 나머지 장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그 해의 특성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